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일본명작기행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
- 과제유형 : (공통) 형
 - 과 제 명 :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쓰기

1. 교재에 수록 된 『방랑기(放浪記)』를 읽고
2. 작가 및 작품 내용과 관련된 <北九州>지역을 중심으로
3. 2박 3일 일정의 문학기행 일정표를 작성하고
4. 일정표에 따른 자신만의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쓰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北九州>지역 문학기행 일정표
2. <北九州>지역에 대한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3. 결론

4. 인용 · 참고문헌



1. 서론

하야시 후미코의 여러 작품 중,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는 작품은 단연 방랑기(放浪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단한 방랑생활을 감성적으로 노래한 방랑기를 읽고 많은 감동과 소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설의 내용 중에서도 제1부, 방랑기 이전 부분에서 어린 방랑자의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방랑기 이전 부분에 나온 장소를 중심으로

하야시 후미코의 흔적들을 따라서 어린 방랑자의 시점으로 기타큐슈(北九州) 지역 문학 기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2. 본론

1. 기타큐슈(北九州)지역 문학기행 일정표

기타큐슈(北九州)지역 2박 3일 문학기행 일정표		
1일차	2일차	3일차
9:35 인천공항 출발 10:55 후쿠오카 공항 도착 12:00 노가타역 도착 12:30 점심식사 13:30 타가신사 15:00 노가타시 석탄기념관 18:00 저녁식사 19:00 노가타역 출발 20:10 숙소 도착 후 취침	9:00 숙소에서 출발 10:31 타가와 이타역 도착 11:00 타가와시 석탄기념공원 12:30 점심식사 13:35 타가와 석탄·역사 박물관 14:40 타가와 이타역 출발 15:50 JR지쿠젠 하부역 도착 16:10 온가강 18:00 JR지쿠젠 하부역 도착 18:30 저녁식사 19:30 숙소로 출발 21:00 숙소 도착 후 취침	9:00 숙소에서 출발 10:15 JR모지코역 도착 10:20 바나나 노점상 발상지 11:00 구 미즈이 클럽 하야시 후미코 기념 자료실 12:30 모지코 레트로 지구도착 13:00 점심식사 14:30 모지레트로 전망대 17:00 JR모지코역 출발 18:15 후쿠오카공항 도착 19:00 후쿠오카공항 출발 20:20 인천공항 도착

2. <北九州>지역에 대한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1일차

아침 기타큐슈로 출발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비가 내려서 쌀쌀한 날씨가 방랑기속의 험난한 방랑생활의 시작인 듯 느껴졌다. 수숙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어느덧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맑게 개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JR 치쿠호 본선을 타고 노가타역으로 서둘렀다. 노가타역에 도착하니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역 주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10분 정도를 걸어서 타가신사로 향했다. 타가신사를 목적으로 걷다보니, 신사 입구의 커다란 도리이가 보였다. 경내에 들어가니, 후미코가 소원을 빌었던 말 동상이 보였다. 말 동상 옆에 있는 안내판에 말 동상의 유래와 하야시 후미코가 소원을 빌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타가신사는 후미코의 어머니가 바나나 노점을 했던 장소이다. 단팥빵을 모두 판 뒤 어머니에게 소쿠리를 맡겨두고 타가신사에서 놀러 가는 후미코의 모습이 눈 앞에 보이는 듯 했다. 타가 신사를 걷다보니, 해마다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 하는 것 같았다. 다양한 축제 내용 중에서 7월 7일에 진행되는 칠석제 때는 어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편안한 분위기에 좀 더 머물고 싶은 분위기였다.

아쉬운 마음으로 타가 신사를 나와 나는 노가타시 석탄 기념관(直方市石炭記念館)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노가타시 석탄 기념관에 도착한 내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광경은 콧펠 32호와 C-11-131호 라는 커다란 증기 기관차였다. 메이지 43년 “치쿠호 석탄 광업 조합”의 회의소로 세워진 이 건축물은 치쿠호 탄전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소개 대로였다.

기념관의 내부로 들어가니, 사진과 그림, 모형,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기계 및 장비 등을 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석탄 가루가 묻어있는 것 같이 거뭇거뭇한 장비들은 당시의 먼지가 많아 흐리고 캄캄한 하늘이 떠올랐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수레를 밀며, 행상을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 지는 듯 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을 둘러보다가 나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바로 초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방랑기 속의 하야시 후미코가 열두살 무렵에 살던 노가타 탄광촌의 모습 같았다. 어린 그녀는 오랜 방랑생활로 친구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내 눈동자에 비춰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잔한 마음으로 노가타시 석탄 기념관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저녁식사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노가타역으로 돌아와 점심식사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를 마친 뒤 노가타역을 출발해서 숙소로 향했다.

2일차

문학기행 2일째 아침 숙소를 나온 나는 타가와 이타역에서 내려서 역을 나와 10분정도 걸어, 타가와시 석탄기념공원에 도착했다. 이곳은 구 미즈이 타가와 광업소를 철거한 뒤 정비된 공원으로, 타가와시에서 생산 되었던 석탄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남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념비와 탄광 부지상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커다란 굴뚝을 보고서 나는 당시 기타큐슈 지방에서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였는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타가와시 석탄기념공원을 지나서 타가와시 석탄 역사 박물관에 도착했다. 석탄의 원인, 채굴과 운반방법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물이 바로 탄광노동자들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과 당시의 탄갱주택을 복원한 코너 였다.

작품 속에서 어린 후미코가 묘사했던 탄광 노동자들의 모습은 삽화를 보지 않고 상상만 해보

아도 침울한 느낌을 받고는 했는데 그들의 고단해 보이는 모습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실제 탄광노동자들의 모형과 탄갱주택을 보고 나니 방랑 생활 중 여인숙에서 정착한 시기에 만났던 마음씨 착한 광인 신케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타가와 이타역으로 돌아가서 지쿠젠 하부역으로 향했다. 작품 속에서 하야시 후미코가 부채와 화장품을 가지고 행상을 다니며 건너던 온가강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30년에 걸쳐, 지쿠호 지역 곳곳에는 탄광이 많았고 온가강도 일시적으로 석탄 운송처로 활약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예전의 탄광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었다. 석탄 먼지 속에서도 달빛이 비추는 온가강은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온가강을 걸으며 귀로에 올랐다.

3일차

문학기행 3일째 아침,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는 숙소에서 나와 JR모지코역으로 향했다. 모지코역을 나와서 1분정도 걸으니 바로 바나나 노점상 발상지가 보였다. 작중 어머니의 바나나 노점이 생각나서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유래를 살펴보니 메이지 시대 후기 이후 대만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바나나를 각지로 보내기 전 상품가치가 떨어진 바나나를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당시, 바나나가 상하기 전에 모지항에서 판매 하던 것이 바나나 노점상 판매의 시작이라고 한다.

바나나 노점상 발상지에서 나는 (구)모지 미츠이 클럽(旧門司三井俱樂部)으로 향했다. 이곳은 본래 미츠이 물산의 접객 및 숙박을 위해 1921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하야시 후미코 기념자료실은 (구)모지 미츠이 클럽의 2층에 위치 해 있었다. 재연 된 서재와 자필로 쓰여진 원고, 사진과 옷가지 등 그녀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모지코 레트로 지구에 도착 한 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모지코 레트로 전망실로 향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하야시 후미코가 태어난 시모노세키와 그 주변 경관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망대에 올라가니 모지코항과 간몬 대교 그리고 시모노세키가 한눈에 들어왔다. 모지코항에는 바나나 맨(バナナマン) 이라는 모형도 있었다. 역시 바나나와 연관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린 방랑자 하야시 후미코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며 천천히 넓게 펼쳐진 시모노세키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다시 나는 전망대를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동했다. 가는 도중 방랑기 이전의 초반부에서 고향이 없다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흔히 고향이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곳 이라는 말을 생각하고는 한다. 하지만 어린 방랑자는 고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통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만 씩씩하게 방랑생활을 이어나간 어린 방랑자 하야시 후미코가 나는 정말 존경스러웠다.

3. 결론

낯선 일본에 방문해서 하야시 후미코의 흔적을 따라면서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며, 마치 자신도 작품 속의 방랑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잘 알지 못하는 길, 장소를 어린 방랑자, 하야시 후미코의 시선으로 경험해 본 이번 기행은 정말로 감회가 새로웠다. 또한 노가타시와 타가와시의 석탄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문학 기행을 통해서 방랑기(放浪記)는 평생 잊지 못 할 작품으로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히로시마의 오노미치에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방랑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하야시 후미코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고 싶다.

4. 인용 · 참고문헌

노가타 타가신사

(<http://tagajinja.jp/>)

Wikipedia バナナの叩き売り

(<https://ja.wikipedia.org/wiki/%E3%83%90%E3%83%8A%E3%83%8A%E3%81%AE%E5%8F%A9%E3%81%8D%E5%A3%B2%E3%82%8A>)

규슈 관광정보 노가타시 석탄박물관

(<http://www.japan-tour.jp/ko/%EB%85%B8%EA%B0%80%ED%83%80%EC%8B%9C-%EC%84%9D%ED%83%84-%EA%B8%B0%EB%85%90%EA%B4%80/%EA%B7%9C%EC%8A%88/%ED%9B%84%EC%BF%A0%EC%98%A4%EC%B9%B4%ED%98%84/%EC%82%B0%EC%97%85%EC%A0%95%EB%B3%B4/19265>)

노가타시 석탄박물관

(<http://yumenity.jp/sekitan/index.html>)

하야시 후미코 기념실

(<http://www.gururich-kitaq.com/kanmon/ko/detail/index.php?id=38&app=0>)

모지코 레트로지구

(<https://www.welcomekyushu.or.kr/event/?mode=detail&id=9999900000346&isSpot=1&isEvent=>)

타가와시 석탄기념공원

(<https://www.crossroadfukuoka.jp/kr/event/?mode=detail&id=4000000001142&isSpot=&is>

Event=1)

후쿠오카현 타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

(<http://www.joho.tagawa.fukuoka.jp/list00784.html>)

(<https://www.welcomekyushu.or.kr/event/?mode=detail&id=9999901004599&isSpot=1&isEvent=>)

온가강

(http://nakamap.jp/viewpoint/index_kr.html)

Wikipedia 遠賀川

(<https://ja.wikipedia.org/wiki/%E9%81%A0%E8%B3%80%E5%B7%9D>)